

歐陽修 문장에서 보여지는 政治的 성격 검토

李承信*

<목 차>

1. 序論
2. 북송 초의 崇文意識과 政治 상황
 - 1) 文治主義
 - 2) 科擧를 통한 사대부 계층의 등장
3. 歐陽修 문장의 政論文적 성격
 - 1) 人才의 등용
 - 2) '寬簡'의 治術
 - 3) 愛民 정신
4. 結論

1. 序論

북송 시기 문장가들을 중심으로 고문 운동은 문학은 물론 나아가 정치, 역사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주도되었다. 당시의 문장가들은 거의 대부분 관료이자 학자로서 문학 운동을 하는 동시에 정치적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이들은 대개 문장을 실제로 창작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이론을 실천하고 정치적 이상을 표출하였다. 歐陽修, 曾鞏, 蘇洵, 蘇轍, 蘇軾, 王安石 등 宋 六家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문장가들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지녔으며 그것을 문장으로 씀으로써 그들 작품의 많은 수가 政論文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고 있다. 특히 구양수는 당시 고문 운동을 주도하던 주체 세력으로서 그 정치적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研究助教授

입장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의 문장 안에서 보여지는 정치성이 더욱 농후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구양수의 문장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편들을 분석함으로써 구양수가 유가적 이상을 가지고 지향하려 했던 정치의 세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북송 초의 崇文意識과 정치 상황

1) 文治主義

송 태조 趙匡胤이 960년에 宋왕 조를 창건한 후 그는 점차 무신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옮기거나 적당한 보상으로 은퇴시켰다. 지방에서는 지역 사령관의 관할 범주를 단 하나의 주로 제한하였으며 그가 죽거나 은퇴하였을 때는 중앙의 관료 가운데서 파견한 문관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태조는 최고의 정예 부대를 수도 경비군으로 옮기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모든 군대를 중앙 정부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두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는 중앙 정부로 하여금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하였으며 과거에 당을 파멸시키고 5대 시대 동안 중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분열케 했던 군벌 세력을 제거하였다.¹⁾

宋太祖는 武人出身으로 武인들이 할거하는 시대를 통일했으며 그들에 의해서 皇帝權이 찬탈되어지고 新皇帝과 융립되는 과정을 보았다. 따라서 왕실의安危를 위해서는 무인세력을 약화시켜야 왕실이 보존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념의 발현으로 문치주의를 강력하게 추진시켜나가면서 더불어 武人除去政治를 펼쳐나가는데 建隆元年(960) 正月4일에 즉위한 태조는 다음날 建

1) 『동양문화사』 153쪽. (을유문화사, 2003) : 태조가 이 같은 군사적 개혁의 실행에 성공함으로써 송의 가장 큰 문제인 군사적 취약성이 야기되었다. 송은 한번도 漢이나 唐이 이룬 바와 같은 군사적 위업을 성취한 적이 없었다.

隆으로 개칭하고 宋으로 國號를 정하고 同11일 武人에게 일차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외면상으로는 論功行賞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치주의 실행과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節度使의 기반이되는 지역을 서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五代에도 유력한 절도사의 세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상용하였던 방법으로서 이 論功行賞에 숨어있는 참뜻은 무인세력의 제거에 있었다고 풀이된다. 둘째, 중앙에 있는 직위변화의 의미이다. 後周政權과 밀착되어 있는 무신을 進爵의 명목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서도 武臣除去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藩鎮勢力의 제거에 성공한 후 문치주의 관료체제를 기본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처음 조치는 藩鎮을 대신한 知州의 임명이었다.

송은 근본적으로 당의 체제를 유지시켜나갔으나 종래의 기능대로 운영하지는 않고 독재군주제의 강화책으로 특수한 職制를 별치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율령체제에 기반을 둔 3省 6部체제는 五代의 절도사 지배 체제 하에서 변형되어 다시 송대에 와서 그것이 복잡해지고 또 제도상 官名과 行政上 實職이 상이하여 唐代의 제도가 外形上 殘存하나 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즉 당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던 尙書·中書門下省은 형식상 존속하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능을 하였던 곳은 中書省, 樞密院, 三司등의 기관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재상은 尙書令, 中書令, 侍中이었으나 송대에는 中書令, 樞密使와 三司使가 재상에 해당하였다. 이에 송대 관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상은 樞密使, 市中 및 中書令을 겸한 留守節度使 그리고 中書令을 보좌하는 同平章事였다. 또한 당대에 군주는 명목상 관료제의 정점에 있었을 뿐 門下省은 천자의 승락을 얻은 명령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천자의 권한은 귀족에 의해서 많은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당말부터 천자의 독점권은 발전해서 이것이 관제상에 나타나 송대에 와서는 천자의 명령이 귀족의 견제를 받지 않고 중서성을 통해서 직접 하달되게 된다. 중앙의 政治·軍事·財政은 각각

中書·樞密·三司로 분장시켜 관료 상호간에 견제토록 하였고 실질적인 재상인 同平章事와 副宰相격인 參知政事는 數人으로 하여 정치운영을 그들의 合議制로 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宰相이나 執政은 단지 國務를 의결하게 만하고 皇帝는 최종 결재만을 하였다. 지방에서도 최고행정구역인 路의 長官은 轉運使를 두고 중요한 路에는 按撫使를 두어 兵權을 맡게 하고 提點刑獄으로하여 금 司法과 官吏의 按察을 행하게 하였다. 路아래 府,州에는 通判을 두었으나 長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중앙에서 파견하여 長官을 견제감시하는 임무를 띠고있었다. 그밖의 皇城司와 走馬承受등의 첩보기관을 활용하여 전국 의 관료와 군대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신관료체제의 통치기구가 정비되어 가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날로 증가하는 많은 수의 관직에 讀書人層을 등용하고 讀書人을 官僚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정책이 시행되어 갔다.

송의 문신관료에 의한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 것은 太宗의 太平興國2년(977)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北漢을 제외한 전 국토가 통일되고 문신지배체제의 기본이 되는 과거제도의 확대와 함께 천하의 州가 朝廷에 직속되고 그들은 道를 관할하지 못하고 단순한 一州의 장관에 불과하게되고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안했으므로 唐末·五代이래 지금까지 지방에 할거해 명맥을 유지해 오던 절도사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방을 路로 나누어 사대부관료인 轉運使를 파견하므로써 송대의 중앙집권적 문신 관료체제의 완성을 보게되었다. 이상과 같이 民政, 財政, 兵制에 있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완성하고 이를 관장하는 관료는 사대부 지식인으로 충당함으로써 송대의 사대부 관료 사회가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있다.

2) 科擧를 통한 사대부 계층의 등장

북송의 황제들은 오랜 통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강화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충정을 맹세할 수 있는 유능한

다수의 관료 집단이 필요했다. 이에 그들은 권문세족들의 관료 진출을 억제하고 정치적 권력을 부리는 고위 관직에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과거 제도를 강화하였다.²⁾

隋王室이 중국을 통일하고 곧이어 唐朝가 그 뒤를 이은 다음부터는 관리등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생겼다. 科擧制가 성립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또한 과거의 기본전제는 인재는 반드시 문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따라서 과목의 시험에 의해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유능한 인재를 실력위주로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귀족세력을 제한하고 천자의 독자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또한 당대에는 과거제도 외에 任子制가 시행되어 고관의 자제는 관직에 무시험으로 임명될 뿐만 아니라 任自出身자가 科擧出身의 進士보다도 관리 승진에 있어서 優待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과 관리의 임명이 2원화되어 있어 禮部의 시험에 합격한 과거출신의 진사는 단지 관료가 될수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을뿐 실제로 관료가 되기 위하여는 다시 吏部의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吏部는 모두 문벌귀족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그 시험과목인 身,言,書,判이라하는것도 身은 容貌, 言은 말하는것, 書는 筆跡, 判은 法律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門閥이 나쁜 사람은 좀처럼 통과할 수 없었다. 게다가 公捲도 事前運動이라는 것이 공인 되다시피하여 그 공정성을 잃고 있었다. 요컨대 그 본래의 취지인 公正性和 開放性을 잃어 서민 계층의 진출보다는 舊門閥貴族에

2) 북송 이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춘추 전국시대부터 인재를 선발하는 데 고심을 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귀족중심의 강력한 신분제사회는 春秋時代라는 변혁의 시대를 맞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전국시대에 들어서 列國들이 各國의 국력신장을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신분을 벗어나 난세를 헤쳐갈 능력있는 인물을 찾게 된다. 즉 기존에는 관료에 등용되기 위해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戰國時代에 들어서서는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고위관료로 등용 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는 매우 비정규적이고 일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고위관료로 승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漢朝가 官吏 특히 지방관을 등용하는데 채용한 薦擧制度는 보다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준에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거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넓은 능력개념에 입각한 것이지만 社會的·政治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때가 많았고 薦擧制度가 豪族勢力의 영속을 위한 도구로 변하고 말았다. 南·北朝時代에는 귀족의 정치를 장악하던 시기에도 閑人出身으로 야망이었고 유능한 사람에게 완전히 막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시기 거의 3세기동안 上層地位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었다.

게 더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五代時代는 전란을 겪으면서 科場의 기강은 매우 문란하고 과거를 관장하는 관리 또한 부패해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송태조가 통일한 후 국초까지도 여전하였다. 이에 태조는 科場에서 정실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座主 門生의 稱과 公薦行爲를 금지시켰으며 殿罰을 실시하였고 967년과 968년 省試에 부정이 개입된 것을 알아차리고 태조는 複視를 命하고 973년에는 황제가 친히 출제하고 講試殿에 나가 親試하기에 이른다. 이제 殿試에 의하여 급제 여부와 성적이 결정되었고 또 승진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進士出身官僚는 天子의 門生이 되는 셈이었다. 당대에 있어서 과거의 최후의 시험을 貢擧라 하고 禮部에서 관장하였으며 천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거를 계기로 시험관과 시험합격자사이에는 사제관계가 성립하고 이것이 親分子分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드디어 당쟁을 유발시키기에 이르렀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進士는 천자의 문하생이 되는 것이고 천자 앞에는 전부 평등하고 재상을 중개로 천자에 직속한다는 생각이 생기고 일단 관료가 되면 천자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이것이 송대 이후 天子獨裁의 지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宋 六家 역시도 대개 진사과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는데, 예를 들면 구양수는 1030년에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왕안석은 1042년에, 증공은 1057년에, 소식과 소철은 1157년에 각각 진사과에 합격하여 정계에 관료로 진출하였다. 북송의 훌륭한 문장가들이 이렇게 대거 과거를 통해서 신진사대부 세력을 형성하고 성장해나갔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가문배경에 대해 어떠한 특전도 주어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거용하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하에 송대 사회에 관료로 진출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천자의 명령을 수행하여 행정과 재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송대의 지배계급으로서 관계로 진출하여 국가의 행정,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로서 국가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향촌사회에서도 포의의 독서인들에 의해서 향촌사회의 문화와 윤리를 지배하면서 향촌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당말·오대 중국의 분열과 지배세력의

교체 및 송대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중소농민층의 증대상황 속에서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출현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치주의 정책의 확산과 유학시설의 발달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전통이나 종족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학문을 습득하여 사대부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다.

3. 구양수 문장의 政論文的 성격

상술한 바의 북송 초의 시대 상황 하에 과거를 통해 등장한 사대부 계층들은 실제로 북송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문장가들 역시 그들의 작품 가운데 많은 수가 정치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구양수와 같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는 시인, 문장가, 학자인 동시에 관리였다. 이는 이전에 시인, 학자, 정치가 등의 역할이 비교적 구별되어 있었던 것과 사뭇 다르며 북송 시기에 오면서 발전해 온 유가적 이상형은 학자, 시인, 정치가를 겸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사상가와 화가의 능력을 겸비하는 ‘全人’의 특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양수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은 대거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 사대부 계층으로 송대 사회의 핵을 이루며 문단 활동에 주력하였고 그들의 문장은 정치적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실제로 문장의 개혁은 곧 정치적 개혁을 의미하기도 했다.

『居士集』과 『居士外集』의 문장 가운데 대다수의 문장 안에서 歐陽修는 정치적인 개혁과 이상적인 치술을 제기하고 있으며 문학 이론과 고문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풀어내고 있다. 특히 歐陽修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가 구체적인 반영되어 있는데, 그는 훌륭한 인재의 등용을 주장했으며, 그러한 인재들이 簡明하고 嚴格한 법률과 제도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는 모름지기 人情에 따라야 하며 愛民을 기반으로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1) 人才의 등용

북송의 문장가들은 자신의 문장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산문 작품 가운데 다수의 편들 안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歐陽修의 경우 중하급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나 네 살에 부친을 여의고 빈곤한 생활을 겪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데, 이로 인해 백성의 疾苦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친의 엄격한 교육과 부친의 품모, 숙부의 위인됨 등의 영향으로 時弊를 바로잡는 데 뜻을 세우고 剛正하며 굽히지 않는 처신을 하였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몇가지 주요 관점을 내세우며 정치적 개혁에 앞장섰다. 실제로 그는 정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관건은 인재의 등용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인재 등용 제도를 개혁하여 진정한 인재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혁적인 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歐陽修의 이러한 정치 이론은 범중엄의 주장과 동일선 상에 있다. 북송 중기에 신흥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군주가 신하를 신뢰하고 집행권을 부여하길 요구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36년 범중엄이 ‘四論’을 제기한 바 있다.³⁾ 그 중 ‘推委臣下論’이⁴⁾ 歐陽修의 이

3) 李燾『續資治通鑑長編·卷一一八』: 帝嘗以遷道事訪諸夷簡. 夷簡曰, 仲淹迂闊, 務名無實. 仲淹聞之, 爲四論以獻, 一曰帝王好尚, 二曰選賢任能, 三曰近名, 四曰推委, 大抵譏指時政. 又言, 漢成帝信張禹, 不疑舅家, 故終有王莽之亂. 臣恐今日朝廷亦有張禹壞陛下家法, 以大爲小, 以易爲難, 以未成爲已成, 以急務爲閑務者, 不可不早辨也. 夷簡大怒, 以仲淹語辨于帝前, 且訴仲淹越職言事, 薦引朋黨, 離間君臣. 仲淹亦交章對訴, 辭愈切. 由是降黜. 侍御史韓瀆希夷簡意, 請以仲淹朋黨榜朝堂, 戒百官越職言事. 從之.

4) 陳邦瞻『宋史紀事本末·卷二十九』: 他日論建都之事, 仲淹進曰, 洛陽險固, 而汴爲四戰之地. 太平宜居汴, 卽有事必居洛陽. 當漸廣儲蓄, 繕宮室. 帝以問夷簡, 夷簡對曰, 仲淹迂闊, 務名無實. 仲淹聞之, 乃爲四論以獻, 一曰『帝王好尚』, 二曰『選賢任能』, 三曰『近名』, 四曰『推委』, 大抵譏切時弊.

리한 주장과 매우 흡사한데,⁵⁾ 歐陽修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좀더 穩重하다. 歐陽修는 인재를 등용할 때 대중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견해, 간언을 거절하는 등의 중론의 외면, 편벽된 믿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縱橫家와 신진사대부들의 용기와 예리함이 반드시 다 들어맞지는 않으므로 가장 실제적이어야 하고 동료와 일반 사람들의 동조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만 영이 내려도 백성들이 잘 따르고 일이 행해지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모두 편안할 수 있음에 주의하였다.⁶⁾ 歐陽修는 高論을 숭상하지 않고 실제에 힘썼는데, 이는 아마도 范仲淹이 慶曆變法으로 말미암아 축출된 경험 때문인 것 같다.⁷⁾ 歐陽修는 禮樂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유가적 근본 관념을⁸⁾ 깊게 신뢰하였다. 그는 이상적 제도 하에서 백성의 뜻을 잘 살피고 그들을 다스릴 도구를 잘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완비되면 정치란 매우 간단하고 쉬워진다고 보았다. 훌륭한 제도와 그 운용은 반드시 인재를 등용하여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歐陽修의 정치 이론은 ‘平淡無奇’라 평가된다.⁹⁾

다음의 「太尉文正王公神道碑銘」은 至和 2년(1055) 王트를 위한 신도비명이다.

공의 사람됨이 엄하고 능히 대사를 맡을 수 있었으니 권세를 멀리 피하며 사사로움으로써 헤서는 안된다고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진종이 그의 현명함을 더욱 알아 주었다. 전약수는 사람을 알아보기로 유명한데, 늘 공을 칭찬하며 “진정한 재상감이다”라고 하였다. 전약수가¹⁰⁾ 주밀부사였는데, 파하자 궁중으로 불러 들어갔다. 누가 크게 기용될만한 지를 묻자 전약수는 공이 그러할만 하다고 하였다. 진종이 내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공이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명예로써

5) 이후 王安石도 인재의 필요와 독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의 글을 仁宗에게 올린 바 있는데, 『王臨川集·卷三十九·上仁宗皇帝言事書』에서 “任之也又專……而使之得行其意.” 라고 하였다.

6) 「爲君難論」: 以其違衆爲獨見之明, 以其拒諫爲不惑群論, 以其偏信爲經發, 爲決於能斷. ……其舍出而舉國之臣民從, 事行而舉國之臣民便.

7) 『宋史·卷三十九·本傳』: 方貶夷陵時, 無以自遣, 因取舊案, 反覆觀之. 見其枉直乖謬, 不可勝數. 於是仰天歎曰, 以荒遠小邑且如此, 天下固可知. 自爾, 惟談吏事.

8) 「武成王廟問進士策」: 禮樂, 治民之具也.

9) 蕭公權著 최명 손문호 공역 『中國政治思想史·下』(서울대출판부, 1998) 參照.

10) 『宋史·錢惟演傳』에 의거하면 錢若水의 字는 澹成 혹은 長卿으로 新安(지금의 河南城) 사람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右諫議大夫 겸 知樞密院事로 옮겨다녔다. 그는 학식이 높고 대사에 판단력이 뛰어나며 효자로 이름이 났다. 44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으며 시호는 宜靖이다.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실질을 구하였다. 진실로 현명하고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그 관직을 오래 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누가 그 직책에 마땅하다고 한 연후에야 옮겼다. 그가 추천하고 끌어들이는 바를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구준이¹¹⁾ 추밀사를 지내다가 그만두게 되자 사람을 시켜 사적으로 공을 만나 재상을 하기를 구하였다. 공이 크게 놀라며 “장상의 소임을 가히 구할 수 있는가? 나는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구준이 심히 그것을 한하였다. 이윽고 결정이 내려져 구준에게 제준무승군절도사동중서문하평장사를 제수하였다. 구준이 들어와 알현하고는 울면서 말하였다. “폐하가 신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와 같습니까?” 진종이 일일이 공이 구준을 추천한 일을 말하였다. 구준이 비로소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며 그에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공은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웃는 일이 적었다. 그 말이 비록 간단하지만 능히 사람들을 이치로써 설득시킬 수 있었다. 침묵하며 온종일 게실 때면 그 사이를 잊볼 수가 없었다. 임금 앞에서 일을 아를 때에는 여러 신하가 서로 같고 다름이 있는데, 공은 천천히 한마디로써 결정하였다. 지금 상제가 황태자였을 때 태자 유덕이¹²⁾ 공을 만나 태자가 글씨를 배우기에 모범됨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공이 “태자유덕의 직분이 이것에 불과한가?”라고 하였다. 조덕명이 백성이 굶주린다고 하며 양식 백만곡(열말의 용량)을 구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덕명이 새롭게 서약을 받아들이고도 감히 어기니 청컨대 조서를 내려 그를 문책하라고 했다. 진종이 공에게 물으니 공이 칙서를 내려 관리에게 모두 경사에서 곡식 백만을 갖추도록 하고 덕명을 불러 가져가도록 청하였다. 진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덕명이 조서를 받고는 부끄러워하며 절을 올리며 “조정에 인물이 있구나!”라 하였다. 대중상부중에 천하가 크게 황충이 들어 진종이 사람을 시켜 들에서 죽은 황충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대신들에게 보여주었다. 다음날 그 재상 중에 웃소매로 죽은 황충을 넣어와 바친 자가 있었는데, “황충이 진짜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칭하여 조정에 보여 모든 백관들이 축하하길 바랬다. 공만 유독 불가하다 여겼다. 수일이 지난 뒤에 바야흐로 일을 아를 때 날아드는 황충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진종이 공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백관들로 하여금 지금 축하하려 하는데, 황충이 이와 같다면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환관 유승규가¹³⁾ 충

- 11) 『宋史·寇准傳』에 의하면 寇准의 字는 平仲으로 華州 下邽(지금의 陝西 渭南) 사람이다. 太平興國進士로 景德 元年(1004)에는 재상을 맡아 요에 맞서는 데 주력하여 사신 眞宋을 澶州로 보내 전쟁을 독려하였다. 이 때문에 얼마 안되어 재상에서 물러났다. 만년에 다시 재상으로 발탁되었지만 天禧 4年(1020) 지위를 떠나 萊國公으로 봉해졌다. 나중에 霍州(지금의 廣東 海康)로 폄직되어 남방에서 죽었다.
- 12) 太子 諭德은 東宮 관속의 하나로 唐代에 처음 세워져 관직이 좌우로 나뉘며 태자를 풍간하고 권계하는 것을 주관한다. 『禮記·文王世子』에서 “師也者, 教之以事而諭諸德者也.”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그 명칭을 따다. 『宋史·職官誌二』에는 “仁宗, 神宗升儲, 庶子, 諭德各置二人.”라고 되어 있다.
- 13) 『宋史』에 의거하면 劉承規의 字는 大方으로 楚州 山陽(지금의 江蘇 淮安) 사람이다. 대대로

성과 근면으로 총애를 받았다,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절도사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진종이 공에게 말하였다. “유승규가 이 자리를 기다리며 눈을 감을 것이다.” 공이 불가하다고 고집을 피우며 말하였다. “훗날 장차 추밀사가 되기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신들은 관직이 다만 유후를 넘지 못했다. 공이 일을 맡은 지 오래되자 사람들 중에 공을 임금에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번번히 공이 죄를 뒤집어쓰고도 일찍이 스스로 변론한 적이 없었다. 사람이 과실이 있게 되면 설령 군주가 매우 노했더라도 공은 변론할 만한 것을 변론하고 반드시 그렇게 한 연후에야 그쳤다. 영왕공이 불에 타 진진까지 번지자 옥에 가두고 화재를 탄핵하길 청하니 연좌되어 죽어야 하는 자가 백여명이었다. 공만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말하였다. “처음 화재가 났을 때 폐하께서 스스로에게 죄를 지우시고 천하에 조서를 내리고 신하들이 모두 장계를 올려 대죄하였습니다. 지금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니 어찌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불이 비록 흔적은 있으나 어찌 하늘이 꾸짖는 것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당좌한 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술사가 글을 올려 궁의 일을 말하여 주살을 당하고 그 집안이 몰수 되었는데, 조정의 선비들이 더불어 오고가며 짐을 쳐 길흉의 설을 묻는 일을 얻었다. 진종이 노하여 어사에게 넘겨 상황을 묻고자 하였다. 공이 말하였다. “이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또한 말이 조정에 이르지 않으니 죄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진종의 노함이 풀리지 않자 공이 스스로 짐을 치는 글을 취하여 올리며 말하였다. “신이 어려서 신분이 천하였을 때 이러한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죄로 삼고자 하시면 원컨대 신과 함께 하옥시키십시오.” 진종이 말하였다. “이 일은 이미 발각된 일이니 어찌 면할 수 있겠소?” 공이 말하였다. “신이 재상이 되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데 어찌 스스로 행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것을 요행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벌줄 수 있겠습니까?” 진종의 화가 풀렸다. 공이 중서에 가서 얻은 글을 모두 불살랐다. 얼마 후 진종이 후회하고 다시 달려가 그를 취하니 공이 말하였다. “신이 이미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의 면죄를 얻어내었다.¹⁴⁾

太祖, 太宗, 眞宗을 모시고 左驍衛上將軍과 安遠軍節度使를 지냈다. 시호는 忠肅이다. 그는 삼십년 동안 內藏을 담당하였는데, 정밀하기로 이름났고 유학을 좋아하고 장서를 즐겼다.

- 14) “公爲人嚴重，能任大事，避遠權勢，不可干以私，由是眞宗益知其賢。錢若水名能知人，常稱公曰，眞宰相器也，若水爲樞密副使，罷召對苑中，問誰可大用者，若水言公可。眞宗曰，吾固已知之矣。……公於用人，不以名譽，必求其實。苟賢且材矣，必久其官，衆以爲宜某職，然後遷。其所薦引，人未嘗知。寇準爲樞密使當罷，使人私公，求爲使相，公大驚曰，將相之任，豈可求耶？且吾不受私請，準深恨之。已而制出，除準武勝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準入見，泣涕曰，非陛下知臣，何以如此。眞宗具道公所以薦準者，準始愧歎，以爲不可及。……公與人寡言笑，其語雖簡，而能以理屈人。默然終日，莫能窺其際，及奏事上前，羣臣異同，公徐一言以定。今上爲皇太子，太子諭德見公，稱太子學書有法，公曰，諭德之職，止於是邪？趙德明言民饑，求糧百萬斛。大臣皆曰 德明新納誓而敢違，請以詔書責之。眞宗以問公，公請勅有司具粟百萬於京師，詔德明來取，眞宗大喜，德明得詔書，慚且拜曰，朝廷有人，大中祥符中，天下大蝗，眞宗使人於野得死蝗以示

왕단의 자는 子明으로 太平興國進士로 眞宗 咸平 4년(1001) 參知政事를 맡았으며 景德 3년(1006) 재상을 배수받았다. 天禧 초 太保의 자리에 올랐고 太尉 冑 侍中이 되었다. 향년 61세로 太師, 尙書令, 魏國公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文正이다.¹⁵⁾ 王氏 집안은 대대로 재상을 지낸 명문으로 王昉 역시 훌륭한 재상의 소임을 다하고 죽게 되자 천자가 命을 내려 神道碑銘을 쓰도록 하였다.¹⁶⁾ 歐陽修는 王昉이 재상으로서 이루어낸 일들을 大節만을 서술하고 眞宗의 총애를 들킨 것은 이야기 등을 통해서 그가 정치에 잘하였음을 서술하였다. 王昉은 조정 안에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고려하여 사람을 기용하였고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자이면 누구라도 등용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 마련해 주었으며 眞宗에게 추천하였다. 그렇게 하면 眞宗은 王昉을 크게 신뢰하고 그 추천대로 직책을 내려주니 君臣간의 신의의 두터움이 더할 나위 없다. 이는 곧 景德 1년 전 1042년에 쓴 문장 가운데에서 말한대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신뢰가 두터워지고 임금의 신하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¹⁷⁾

歐陽修는 특히 人才의 문제를 중시하여 천하의 근심이 오랑캐의 우환이 아니면 관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¹⁸⁾ 그러므로 사회의 정치 제도를 개혁

大臣, 明日, 他宰相有袖死蝗以進者, 曰蝗實死矣, 請示於朝, 率百官賀, 公獨以爲不可. 後數日方奏事, 飛蝗蔽天, 眞宗顧公曰, 使百官賀而蝗如此, 豈不爲天下笑邪! 宦官劉承規以忠謹得幸, 病且死, 求爲節度使, 眞宗以語公曰, 承規待此以瞑目, 公執以爲不可, 曰他日將有求爲樞密使者奈何? 至今內臣官不過留後. 公任事久, 人有謗公於上者, 公輒引咎, 未嘗自辯. 至人有過失, 雖人主盛怒, 可辨者辨之, 必得而後已. 榮王宮火, 延前殿, 有言非天災, 請置獄劾火事, 當坐死者百餘人. 公獨請見曰, 始失火時, 陛下以罪已詔天下, 而臣等皆上章待罪, 今反歸咎於人, 何以示信? 且火雖有迹, 寧知非天譴邪? 由是當坐者皆免. 日者上書言宮禁事, 坐誅, 籍其家, 得朝士所與往還占問吉凶之說. 眞宗怒, 欲付御史問狀. 公曰, 此人之常情, 且語不及朝廷, 不足罪. 眞宗怒不解, 公因自取嘗所占問之書, 進曰臣少賤, 時不免爲此, 必以爲罪, 願并臣付獄. 眞宗曰, 此事已發, 何可免? 公曰, 臣爲宰相執國法, 豈可自爲之, 幸於不發而以罪人? 眞宗意解, 公至中書, 悉焚所得書. 既而眞宗悔, 復馳取之, 公曰, 臣已焚之矣. 由是獲免者衆.”

- 15) 『宋史·王旦傳』: 王旦字子明, 大名華人. 曾祖言, 黎陽令. 祖愷, 左拾遺. 父祐, 尙書兵部侍郎, 以文章顯於漢, 周之際, 事太祖, 太宗爲名臣. 嘗諭杜重威使無反漢, 拒慮多遜害趙晉之謀, 以百口明符彥卿無罪, 世多稱其陰德.
- 16) 王闢之『澠水燕談錄·卷二』: 王魏公旦與楊文公大年友善, 病篤, 大年於臥內, 托草遺奏, 言, 爲丞相, 不可以將盡之言爲宗親求官, 止叙平生遭遇之際. 表上, 眞宗嘆之, 遽遣就第, 名數進錄.
- 17) 『爲君難論』: 用人之術, 任之必專, 信之必篤.
『準詔言事上書』: 爲人君者, 以細務而責人, 專大事而獨斷.

해야 하고 그렇다해도 능력있는 인재가 없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1043년 慶曆新政 때 方田均稅法을 실행했지만 각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이 均稅의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금을 균등하게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嘉祐 5년(1060)에 다시 정부에서 균세를 위한 관리들을 파견했지만 정선된 인재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¹⁹⁾ 歐陽修는 과거의 뼈아픈 개혁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 바로 잘못된 인재의 선발과 등용에 있음을 통감하였는데, 왕단의 인재 등용의 현명함을 서술함으로써 치술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주목하도록 하였다.

또 군신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 충돌이 있을 때 평소에 과묵한 王도 한 마디로 결정하면 모두 그의 말을 따르니 그만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궁에 불이 나자 이미 군신들이 대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고한 자들을 데려다 죄를 묻자 그들을 살려 내기 위하여 왕 앞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마침내 주살을 당할 뻔한 자들도 면죄하게 하고 자신도 왕의 신뢰를 다시 얻게 되는 이야기에서 왕에게 아부하거나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정사를 돌보아 나가는 강건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치적을 겉치레로 일삼지 않고 크고 작은 逸事들을 통해서 보여 준다. 이러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칭송이라기 보다는 이상적인 치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2) ‘寬簡’의 治術 제시

歐陽修는 공자가 말한 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안된다는 기본 신조로 治術에 뛰어난 인물들이 그 말은 ‘簡’하지만 믿음을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簡’이란 마땅하고 요령을 얻는 것을 말한다. 歐陽修는 이와 같은 자신이 이상적

18) 「論乞止絕河北伐民桑柘札子」: 殆非夷狄之患, 全由官吏壞之.

19) 「論方田均稅劄子」: 多是不知均稅之術, ……稅未及均, 民已大擾.

으로 생각하는 治術을 문장 안에서 忠臣, 賢臣, 官吏 등을 평가하는 가운데 내세우며 人情에 따른 관대함과 번잡하지 않고 간요하게 다스리는 치술을 쓴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가적 치술의 이상형을 제시하였다.

「翰林侍讀學士右諫議大夫贈工部侍郎張公墓誌銘」은 皇祐 5년(1063) 張錫을 위해 쓴 글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전에 현령된 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장막을 겹겹히 쳐서 꼭 막고 격리하여 다스리는 것을 폐했다. 공이 가시어 문을 없애고 장막을 걷어내며 사람들에게 알렸다. “내가 다스리는 것에 세가지가 있을 따름인데, 강하다고 힘만 믿고 부유하다고 몰자만 의지하며 형벌을 내려 재물로 속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먼저 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공의 말이 간략하되 반드시 믿음이 있고 법이 간략하되 반드시 엄하다 하였다. 이에 豪勢하는 자들이 굴복하고 선량하고 약한 자들이 기세를 펴니 그 현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²⁰⁾

당시에는 재능있는 관리들을 선발하여 경사의 주변 현들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張錫또한 그와 같이 東明縣丞으로 위임되었다. 동명현은 開封府에 속하는데 외부와 막혀 장막이 닫히고 정사가 황폐하였다. 그런데 장석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그는 직접 동명현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힘을 근거로 사람을 기만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속죄하려는 사람들을 먼저 처벌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말은 적되 신뢰가 쌓이고 질차는 간단하되 엄격히 하는 것으로써 강력하게 정사를 실천하였다. 그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모두 굽히고 착하고 약한 자들이 기세를 폈다. 歐陽修는 治術에 있어서 번잡한 것을 피하고 대체적인 원칙을 잘 세워 그것을 엄격히 하여 신뢰를 얻게 되었던 장석의 치술을 극찬하였다.

「國子博士薛君墓誌銘」은 治平 3년(1066) 歐陽修 나이 63세 때 쓴 글로 薛良孺를 위한 글이다.

20) “前爲領者，闔門重帘，以壅隔廢治。公至則闢門去帘，告其人曰，吾所治者，三而已，強恃力，富恃貴，刑恃贖者，吾所先也。其人以謂公言簡必信，法簡必嚴，於是豪勢者屈而善弱者伸，縣以大治。”

고을에 오랑캐가 섞여 있었는데 그대가 그 정치와 명령을 간략히 하시며 반드시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셨기에 오랑캐들이 경외하며 친애하였다.²¹⁾

라고 하였다. 이 모두는 정치의 법령이나 명령을 간략히 하되 엄격함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얻고 그로 인해 德으로 융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은 仁宗 至和 元年(1054)에 쓴 문장으로 다음에서는 范仲淹의²²⁾ 장수로서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공이 장수가 되어 자중함을 지키는 데 힘쓰고 눈 앞의 천한 공을 세우거나 작은 이익에 탐하는 데 급해하지 않았다. 연주에서 청간성을 건축하고 영전을 만들고 승평과 영평의 폐허된 성채를 복구하였는데, 숙강족으로 농업으로 돌아간 자가 수만 호나 되었다. 경주에서 대순에 성을 쌓고 요해지로 거하고 적의 땅을 빼앗아 경작하였다. 또 세요와 호려에 성을 쌓아서 명주와 멸장 등 대족들이 모두 적을 떠나서 중국의 쓰임이 되었다. 변방의 제도가 오래도록 폐해져서 병사와 장수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이 처음으로 연주의 병사를 나누어 여섯 장수를 두었고 훈련을 시켜 가지런히 정비하니 제도가 모두 그것으로 모범을 삼았다. 공이 계신 곳은 적이 감히 범하지를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공이 적을 만나면 임기응변이 어떠한지를 의심하였는데 대순에 성을 쌓을 때 하루 아침에 병사를 이끌어 내니 여러 장수들이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랐다. 군대가 유원 땅에 이르러야 처음으로 호령하여 그 지점을 일러 두고 가서 다시 성을 쌓도록 하였다. 관축의 쓰임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군중에서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적이 삼만의 기병으로 와서 싸웠다. 공이 여러 장수에게 경계시켜 말하였다. “싸우다가 적들이 패주하면 쫓아가되 강을 건너지는 말아라.” 이윽고 싸우다가 적이 과연 도망갔는데 추격자들이 강을 건너지 않았고 강 건너로 과연 복병이 있었다. 적은 계획이 실패하자 모두 이끌고 떠났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모두 공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탄복하였다. 공이 장수와 관리들을 대할 때 반드시 범을 경외하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사받은 것은 모두 임금의 뜻으로 여러 장수들에게 하사하여 스스로에게 감사하도록 하였다. 여러 속국들이 그의 출입을 방임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하는 자가 없었다. 변주가 와서 알현할 때 그들을 침실로 불러들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더불어 이야기 함에 의심하지 않았다. 공이 3

21) “縣雜蕃夷，君爲簡其政令，示之必信，蕃夷畏愛。”

22) 『宋史·三百十四』：范仲淹字希文，唐宰相履冰之後，其先邠州人也。後徙家江南，遂爲蘇州吳縣人。仲淹二歲而孤母，更適長山朱氏，從其姓名說。少有志操，既長知其世家，迺感泣辭母去之應天府依戚同文學。晝夜不息，冬月憊甚以水沃面食不給至以糜粥繼之人不能堪，仲淹不苦也。

년 동안 머물자 병사들은 용감해졌고 변방이 건실해졌으며 은혜와 믿음이 크게 미쳤다. 이에 계책을 결정하여 횡산을 취하고 영무를 수복하였다. 그리고 원호가 여러번 사신을 보내어 신하라 칭하며 감화할 것을 청했다. 그래서 임금 또한 공을 불러들여 돌아오게 하였다. 처음에 섬서로의 사람 중에 항병으로 편입된 자가 수십만인데 그 후에 얼굴에 글자를 새겨 군인으로 삼았다. 다만 공이 통솔한 군대는 손에 글자를 써서 공이 떠나고 병사가 해산할 때 그들만이 다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두 로에서 숙강족을 얻어 부려 그들로 하여금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그는 둔전병을 두어 내지로 와서 취식하게 하여 섬서 사람들이 수레로 양식을 나르는 노고를 덜어 주었다. 그 베푸는 바가 떠나고도 사람들이 그를 덕이 있다고 여긴 것이니, 그 법을 서로 지키며 감히 바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많다.²³⁾

范仲淹은 사실 歐陽修와 개인적으로 크게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은 아니었다. 다만 개혁의 의지가 서로 들어맞았고 사적인 관계를 떠나 범중엄이 재상 呂夷簡의 모함으로 좌천을 당하자 歐陽修가 그것이 부당함을 대변하여 맞서 싸우다가 자신 또한 이릉으로 폄적을 당했다. 歐陽修는 諫官 高若訥에게 간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與高司諫書」를 보내었는데, 책임감 없고 사리사욕에만 급급했던 高若訥이 여이간에게 歐陽修를 모함하여 좌천시켰다. 후에 仁宗이 西夏 변방의 문제로 부득불 범중엄을 기용하게 되자, 그로 인해 폄적 당한 歐陽修 역시 복직되었다. 그런데도 보수 세력인 권문세족들은 개혁과 범중엄을 백안시하고 그에게 ‘朋黨’이라는 죄목을 씌워 다시 혈투자 歐陽修가 이에 「朋黨論」을 지어 진정한 대의의 봉당을 거론하며 범중엄을 지지하였다. 歐陽修와는 개혁의 뜻을 같이하였던 범중엄은 어려

23) “公爲將，務持重，不急近功小利。於延州築青澗城，墾營田復承平永平廢塞，熟羌歸業者數萬戶。於慶州城大順，以據要害，奪賊地而耕之。又城細腰胡蘆，於是明珠滅臧等大族，皆去賊爲中國用。自邊制久隳，至兵與將常不相識。公始分延州兵爲六將，訓練齊整，諸路皆用以爲法。公之所在，賊不敢犯。人或疑公見敵應變爲如何，至其城大順也，一旦引兵出，諸將不知所向，軍至柔遠，始號令告其地處，使往築城。至於版築之用，大小畢具，而軍中始不知。賊以騎二萬來爭，公戒諸將，戰而賊走，追勿過河。已而賊果走，追者不渡，而河外果有伏。賊失計，乃引去。於是諸將皆服公爲不可及。公待將吏，必使畏法而愛己。所得賜賚，皆以上意，分賜諸將，使自爲謝。諸蕃質子，縱其出入，無一人逃者。蕃酋來見，召之臥內，屏人徹衛，與語不疑。公居三歲，士勇邊實，恩信大洽，乃決策謀取橫山，復靈武而元昊數遣使，稱臣請和，上亦召公歸矣。始西人籍其鄉兵者十數萬，旣而黥以爲軍，惟公所部，但刺其手，公去兵罷，獨得復爲民。其於兩路，旣得熟羌爲用，使以守邊，因徙屯兵就食內地，而紓西人饋餉之勞，其所設施，去而人德之，與守其法不敢變者，至今尤多。”

서 매우 빈곤하여 주야로 쉴 수가 없었고 그 어머니는 의지할 곳도 없이 처지가 곤란하여 朱氏에게 개가하였다 한다. 끼니를 죽으로 때우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곳곳이 견뎌내고²⁴⁾ 학문에 심취하여 성공하였다. 그는 의지가 매우 강건하였고 어려운 고통을 인내할 줄 알았던 까닭에 후에 그의 인생에 커다란 능력을 더욱 발휘하면서도 내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당시 범중엄은 함께 개혁을 주장하던 혁신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歐陽修는 혁신파의 선두인 범중엄이 변방의 제도를 정비하고 외세로부터 강건히 지켜내는 능숙한 기술을 지녔음을 칭찬하였다.

또 그가 임기응변과 선견지명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정술을 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수와 관리의 직분으로서 전장에서는 능숙능란한 병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는 은덕으로 처신하니 병사와 백성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가 행한 바대로 지켜나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혁신파가 추구하는 개혁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²⁵⁾

歐陽修는 孔子의 ‘齊之以德’과 ‘齊之以刑’을 겸용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恩威並用’하는 治術의 근간이 된다. 그는 관대하고 타당한 치술로써 법을 남용하지 않고 형벌을 망령되이 내리지 말아야 하며 簡要的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의 문장들에서 망자를 평가하는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

『鎮安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贈中書令諡文簡程公墓誌銘』은 嘉祐 2년(1057) 程琳²⁶⁾이 죽은 이듬해 칙명을 받들어 쓴 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 24) 『宋史·范仲淹傳』: 晝夜不息, 冬月憊甚, 以水沃面; 食不給, 至以糜粥繼之, 人不能堪, 仲淹不苦也.
- 25) 韓琦『范文正公奏議序』: 公以王佐之才, 遇不世出之主, 竭忠盡瘁, 知無不爲, 故由小官擢諫任, 危言鯁論, 建明規益, 身雖可紕, 義則難奪, 天下正人之路, 始公闢之. 其後恤災南方, 扞寇西垂, 貳機政, 陪宰席, 宏謀大策, 出入仁義, 朝思夕慮, 條疏深切, 志欲膏澤中夏, 鞭笞四夷, 使我宋之基, 萬世不拔.
- 26) 『宋史·二百八十八』: 鄭琳字天球, 永寧軍博野人. 舉服勤辭學科補泰寧軍節度推官, 改秘書省. ……上書曰, 臣雖老尚能爲國守邊未報得疾卒. 贈中書令諡文簡. 臨爲人敏厲深嚴, 長於政事, 辨議一出不肯下人, 然性畜於財而厚自奉養章獻太侯時嘗上武後臨朝圖人以此薄之.

조정에 그를 참언하는 자들이 공이 망령되어 사람을 죽여 촉 땅 사람들이 두려워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중귀인을 보내어 달려가 그것을 살펴 보게 했다. 사자가 그 경내에 들어가 거주민과 여행자들이 공의 홀륭함을 았다투어 말하였다. 사자가 요망한 사람을 죽인 일을 물었다. 그 마을 부로들이 모두 한사람을 죽여 촉 땅에 수십년간 아무 일이 없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사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이전에 촉 땅을 어지럽힌 자는 智謀와 호걸을 갖춘 재사가 소인배들만 있었습니다. 그 처음을 바로잡지 못하여 마침내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²⁷⁾

程琳은 988년에 태어나 1056년에 생을 마쳤으며 관직이 鎮安軍節度使에 이르렀다. 景祐 4년 參知政事를 제수받고 皇祐 초 同平章事를 배수 받았으며 시호는 文簡이다. 사람됨이 매우 엄격하여 송사를 처리할 때에도 귀천을 불문하였다. 변방의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진안군에 있을 때에도 이미 일흔에 가까운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방으로 다시 돌아가 다스리고 싶다고 상소를 올렸다. 그 후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歐陽修는 정립과 왕래가 있어 조서를 받들어 이 글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글 외에도 「祭程相公文」, 「鎮安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贈太師中書令程公神道碑銘」 등이 있다. 또한 『宋史·程琳傳』은 歐陽修의 「程公神道碑銘」을 축약하여 완성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정립이 과감한 결단을 하여 백성들의 잘 다스린 이야기를 적고 있다. 백성들이 한사람의 횡포로 전전공공하고 있을 때 그 한사람을 죽여 만인을 평화롭게 살리는 길을 택한 이야기로서 때로는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말하였다.

「尙書兵部員外郎知制誥謝公墓誌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전에 요망한 중이 거짓된 말로 남녀 수백명을 유혹하여 왕왕 주야로 모이게 하였다. 무릇 육칠년간 이러한 일이 없어지지 않았다. 공은 수괴 둘을 잡아다 법대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한사람도 더 이상 죄를 묻지를 않았다. 백성이 비로소 공의 법이 두려워할만한 것을 알면서도 가혹하지는 않은 것에 안심하였다.²⁸⁾

27) “讒之朝者，言公妄殺人，蜀人恐且亂矣。上遣中貴人馳視之。使者入其境，居人行旅爭道公善。使者問殺妖人事，其父老皆曰，殺一人，可使蜀數十年無事。使者問其故，對曰，前亂蜀者，非有智謀豪傑之才，乃里閭無賴小人爾。惟不制其始，遂至於亂也。”

이 글은 歐陽修가 낙양유수추관 시절부터 교유하였던 謝希深을 위한 문장이 다. 당시 상관인 錢楡演이 歐陽修의 임직을 반가히 맞으며 尹洙, 謝希深, 梅聖俞, 張堯夫, 張子野 등을 그에게 소개시켰는데, 이로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²⁹⁾ 사회심의 이름은 絳이며 陳留사람으로 열다섯에 진사 시험에 급제한 출중한 인물이다. 그는 매우 성실하여 평소에 歐陽修가 존경하였는데, 특히 그에게 宋公垂란 자가 문장을 빨리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歐陽修를 독려했다 한다. 한편으로 친분이 돈독하면서도 훌륭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강에 대한 歐陽修의 존경심은 매우 컸으며, 이에 그의 현명한 치술에 대해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수백명의 남녀가 요망한 중의 땀에 빠져 그릇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그치게 하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우두머리만을 혹독히 처벌하고 나머지는 면죄해주었다. 즉 한둘의 사악한 이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 한둘에게 죄를 무겁게 물음으로써 엄하면서도 가혹하지 않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는 歐陽修가 무조건적인 德治 혹은 法治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양자를 겸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治術을 표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程琳과 謝絳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중 우두머리만을 혹독하게 처단함으로써 다수에게는 관대하게 면죄를 해주었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죄질이 심한 자는 사형 등의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歐陽修의 관대하고도 요령있는 치술은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간요하여 시행하기 쉽게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즉 이치가 아무리 번잡하여도 그 요령을 얻으면 간단하여지고 간단하면 행하기 쉬워서 어긋나는 일이 없으며³⁰⁾

28) “先時有妖僧者以僞言誘民男女數百人，往往晝夜爲會。凡六七年，不廢。公則取其首惡二人置之法，余一不問。民始知公法可畏而安於不苛。”

29) 潘永因『宋稗類鈔·卷五』：錢思公鎮洛，所辟僚屬，皆一時俊彥。時河南以陪都之要，驛舍常缺，公大創一館，榜曰臨轅。既成，命謝希深，尹師魯，歐陽公三人各撰一記，期以三日後宴集賞之。三子相掎角以成。文就，出之相較，希深之文僅五百字，歐陽公之文五百餘字，獨師魯止三百八十餘字，而語簡事備，復典重有法。

30) 『海陵許氏南園記』：夫理繁而得其要則簡，簡則易行而不違。

이렇게 치술을 행하면 백성들이 모두 그 간요하고 행하기 쉬움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江鄰幾墓誌銘』은 嘉祐 5년(1060) 경사에서 쓴 글로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군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말하였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공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 간이함을 즐겼다. 공이 의심을 변별하고 옥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혹은 수단을 써서 변통하니 다 얻어내지 못함이 없었다. 그러나 늘상 그것을 쓰지 않았으며 또한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지도 않았다.³¹⁾

江鄰幾의 이름은 休復으로 開封 陳留(지금 河南에 속함) 사람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藍山縣尉가 되었고 集賢校理, 判尙書刑部를 역임했다. 慶曆 4년 蘇舜欽 등과 함께 院祠神會에 대해 황제에게 아뢰는 일로 落職되어 監蔡州稅가 되었다. 나중에 이전의 직분을 회복하고 尙書刑部郎中으로 옮겼다. 저서로는 文集 二十卷과 『春秋世論』, 『唐宜鑒』, 『嘉祐雜志』 등이 있다.³²⁾ 강린기가 판별하기 어려운 옥사를 처리할 때 수단과 기교를 사용하여 變通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는 일반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주어 편안하되 걱정 근심이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으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으로 백성의 송사를 해결했으며 그것을 자랑삼지 않는 겸덕을 지녔다고 칭송하였다. 즉 歐陽修는 치술에 있어 항상된 방법이 아닌 상황에 따른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을 쓰는 요령을 택했다.

『尙書職方郎中分司南京歐陽公墓誌銘』은 景祐 元年(1034) 숙부 歐陽穎을 위한 글로 治術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중 특히 심한 곳은 흡주이다. 백성이 율령에 익숙하고 성격이 소송하기를 좋아하고 집집마다 스스로 문건을 기록하여 무릇 사람들의 비밀스럽고 사적인 언행

31) “君子治人，則曰，爲政所以安民也，無擾之而已。故所至民樂其簡易。至辨疑折獄，則或權以術，舉無不得，而不常用，亦不自以爲能也。”

32) 『宋史·四百四十三』: 江休復字隣幾，開封陳留人。少彊學博覽爲文淳雅，尤善於詩，喜琴奕飲酒，不以聲利爲意進士，起家爲桂陽監藍山尉騎驢之官。

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들으면 시시각각 모두 기록하였다. 소송이 있으면 증거로 삼았다. 그들이 옥사로 들어가고 족쇄를 채워도 마치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돛자리 위에 눕는 것처럼 편안히 여겼다. 도둑이 백성 동씨를 시장에서 죽였는데 3년 동안이나 붙잡지를 못하였다. 부군이 이르러서 잡아서 법으로 다스렸다. 또 부자집에 도둑이 밤에 들어와 그 창고를 열었는데 관리들이 백방으로 급히 그를 사로잡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상금까지 크게 걸었으나 모두 잡질 못하여 관리들이 그것을 곤궁스러워 하였다. 공이 말하였다. “체포하되 현상금을 걸지 말라.” 다만 부자집 아들 둘을 불러 형들을 씌워 옥사에 붙여 두고 심문하였다. 흡주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본디 착한 아들이다.” 크게 괴이하게 여기고 번갈아가며 의문을 품고 간하였다. 공이 완강하게 돌이키지 않고 심문을 더욱 급하게 하니 두 아들이 자복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백성들이 오히려 심문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으로 실토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도둑맞은 물건을 어느 장소에서 찾음에 이르니 모두가 들어맞았다. 그 연후에야 탄복하며 말하였다. “공이 신명토다!” 더욱 어려운 것을 다스림이 이와 같으니 그 쉬운 것은 알 만하다. 공이 강직하고 과감하며 기개가 있고 밖으로는 엄하나 안으로는 밝아서 감히 범할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정치에 베풀었고 또한 이것으로 그 자신을 지켰다.³³⁾

歐陽穎은 字는 孝叔이며 歐陽修의 부친과 같은 해에 등과하였다. 관직이 尙書職方郎中에 이르렀고 爲政이 매우 엄격하고 분명하도록 힘쓰고 위엄과 은덕을 지닌 인물이다.³⁴⁾ 그는 사건을 능숙능란하게 다루기로 소문나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명하다고 칭송되었다. 이 문장 안에서 歐陽修는 그가 강직하고 과감하며 겉으로 엄하면서도 안으로는 밝아 범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굳건히 견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⁵⁾ 구양영은 일을 말끔하게 잘 처리하고 환관들과 왕래하여 재상의 고위직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세를 부리거나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

33) 「尙書職方郎中分司南京歐陽公墓誌銘」: 其尤甚曰歙州, 民習律令, 性喜訟, 家家自爲簿書, 凡間人之陰私毫髮, 坐起語言, 日時皆記之, 有訟則取以證. 其視入狴牢就桎梏, 猶冠帶僂囊, 恬如也. 盜有殺其民董氏于市, 三年捕不獲, 府君至, 則得之以抵法. 又富家有盜夜入啓其藏者, 有司百計捕之甚急, 且又大購之, 皆不獲, 有司苦之. 公曰, 勿捕與購, 獨召富家二子, 械付獄, 鞠之. 州之吏民皆曰, 是素良子也, 大怪之, 更疑互諫. 公堅不回, 鞠愈急, 二子服. 然吏民猶疑其不勝而自誣, 及取其所盜某物于某所, 皆是, 然後嘆曰, 公神明也. 其治尤難者若是, 其易可知也. 公剛果有氣, 外嚴內明, 不可犯, 以是施于政, 亦以是持其身.

34) 「歐陽氏譜圖」: 爲政務嚴明, 有威惠.

35) 「剛果有氣, 外嚴內明, 不可犯, 以是施于政, 亦以是持其身.”

에도 연루되지 않았다. 이는 歐陽修의 처신을 연상시킬 정도로 청렴결백하고 분명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위의 문장은 그의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옥사를 처리하여 한치의 오류도 범하지 않으므로 죄수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누구도 잡지 못했던 범인을 민첩한 판단과 행동으로 잡아들였으며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직시하여 의외의 범인을 잡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일들을 소상히 말하였다. 이는 모두 정확하고 빠른 판단과 통찰력으로 송사를 해결하고 범인을 사로잡는 능력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죄인을 학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인덕이 나타나 있으며 재빠르고 예리하며 비범한 판단으로 범인을 잡는 뛰어난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³⁶⁾ 이 모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 그리고 자신을 견지하는 정치적 태도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3) 愛民精神

歐陽修는 서정과 의론이 겸비되는 문장 안에서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입장과 지향하는 유가적 治術을 드러내었다. 그는 후대 학자들의 평가대로 儒家的 道德 文章의 대표자인 만큼³⁷⁾ 道家와 佛家를 반대하고 儒家的 가치관에 입각하여 유가 정치의 理想과 愛民 정신을 한껏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천과 신에게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리는 내용의 祭文에 있어서 그의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며 아울러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위정자의 典範을 보여주고 있다.

「求雨祭文」은 寶元 元年(1038) 歐陽修 나이 32세 때 쓴 글이다.

홍수와 가뭄의 재난으로 관리를 꾸짖지 않고 신께 고합니다. 오히려 백성이 불행히도 그 재난을 당했습니다. 저도 신과 더불어 또 불행히도 당사자가 된 것은 저

36) 『宋史·歐陽頌傳』: 機敏有智謀, 檢狹過人.

37) 郭預衡 『中國散文史』(山西教育出版社, 1991) 371쪽 參照.

는 관리로 그 록을 먹고 신은 그 제사를 향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뭄이 들어 현령이 비록 어리석어도 오히려 두려워 분주히 할 줄은 압니다. 신께서는 지극히 영험하시니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³⁸⁾

歐陽修가 관리된 자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를 내려 달라고 신에게 간청하는 대목이다. 관리는 녹을 먹고 신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신을 설득하고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을 깨우치고 감동시키는 것임을 말하였다.

「求雨祭漢景帝文」은 寶元 元年(1038) 歐陽修 나이 32세에 쓴 글이다.

저는 죄가 있어서 이곳에서 현령이 되었으니 의당 백성에게 신을 섬길 것을 권하여 그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현령이 백성을 다스리고도 옥사의 소송을 밝히지 못하고 또 백성의 위급함을 구해주지 못하여 현으로부터 십여리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무릇 백성의 일도 모두 알 수 없고 어리석게 신을 모시는 일에도 태만하였으니 이 모두가 저의 죄이며 또 좌천되어 와서 현령된 죄보다 더 심합니다.³⁹⁾

가뭄이 들어 신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자신이 현령으로서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

「北嶽廟賽雨祭文」은 景曆 5년(1045) 歐陽修 나이 39세 때 쓴 글로 백성의 곤궁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신에게 호소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들어 있다.

옛날 제후의 나라는 홍수와 가뭄과 풍작과 흉작으로 산천에서 기도하는 바 각기 그 봉해진 데에 나아가서 한다. 제사가 박하고 지위가 비천하면 한 나라에 그치며 신께서 복을 내리신 바도 역시 그 나라 안을 넘지 않는다. 아마도 커다란 산과 사방의 명산과 천하의 영웅 같은 이들은 천자가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을 하니 공경

38) 「求雨祭文」: 水旱之災, 不以責吏, 則以告神. 嗚呼. 民不幸而罹其災. 修與神又不幸而當其事者, 以吏食其祿而神享其祀也. 今歲旱矣, 令雖愚, 尙知恐懼而奔走. 神至靈也, 得不動於心乎.

39) 「求雨祭漢景帝文」: 修以有罪, 爲令於此, 宜勤民事神以塞其責. 令既治民, 獄訟之不明, 又不救民之所急, 至去縣十餘里外. 凡民之事, 皆不能知, 頑然慢於事神, 此修爲罪, 又甚於所以來爲令之罪.

과 왕들이 추송합니다. 그러하니 歐陽修의 직분은 한 지역의 수령이 아니라 무릇 하북 천리에 위아래로 추종하니 모두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기도는 하나의 진현에 그치지 않고 하수 이북으로부터 은혜를 모두 다 입기를 바라옵니다. 하물며 신의 주인되심이 또한 하북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진대 이로운 은택의 널리함이 의당 무궁하게 이르러야 합니다. 이미 그 하사하신 것을 얻고 또 감히 더럽히오니 신께서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향⁴⁰⁾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歐陽修의 직분임을 알고 그 소임을 위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다. 신의 은택이 편협하지 않게 두루 널리 미치어 더욱 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소망을 대변해 주고 있다.

「又祭漢高祖文」은 경력 7년(1047) 歐陽修 나이 41세 때의 글이다.

백성들은 농사에 근면치 못할까 봐 늘상 걱정하고 농사는 근면히 하는데 비가 그심은 것을 낭패하게 합니다. 관리는 항상 그 직분을 수행치 못할까 근심하는데, 직분은 다 수행하였는데, 비가 그 공을 망칩니다. 백성과 관리가 나태하면 신의 벌을 두려워하는데, 백성과 관리를 휘방놓으니 어찌 신께서 분명히 들으신 것입니까? 지금 비록 보리가 이미 다 망쳐졌지만 오히려 곡식을 기대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 보수할 만하니 어찌 감히 그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허물을 추궁하기는 힘드니 신께서 그 끝에 은혜를 베풀기 바랍니다.⁴¹⁾

백성들이 근면하지 못하여 농사를 망치는 것이라면 관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관리와 백성의 나태함 때문에 신이 도와주질 않는 것이라 여기겠지만 양자가 모두 근면하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歐陽修가 항상 관리된 자로서 백성의 안위를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백성들의 기원을 잘 대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古者諸侯之國，水旱豐凶，山川所禱，各卽其封。祀薄秩卑，止於一國，而神所降休，亦不過其國中。豈如巨岳，四方之鎮，天下之雄，天子命祀，公王之崇。而修之職，既非一邦之守，凡河北千里，上給下足，皆責于厥躬。故修之禱，非鎮一州而止，自河以北，冀厥惠之咸蒙。況神之主，又非河北而已，利澤之廣，宜及於無窮。既獲賜矣，而又敢黷，幸神聽之惟聰。尚饗!”

41) “民常患不勤於農，農勤矣而雨敗其稼，吏常患不修其職，職修矣而雨害其功。吏與民慢，則懼神罰。妨民沮吏，豈又神聰! 今麥雖已失，猶有望於穀。城尚可補，敢不勞厥躬。咎難追於已往，神幸惠於其終。”

「祈晴祭城隍神文」은 경력 7년(1047) 歐陽修 나이 41세 때의 작품으로 백성을 행한 위정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어제 왕륜이 도적이 되어 성 저자거리를 공격하고 약탈하니 주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후유증이 아직 다 낫지도 않았음은 저의 말이 필요없이 신께서 보시는 바입니다. 근자에 조정의 뜻을 받아 상황을 수리하는 것은 지나간 폐단을 경계삼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께서 우리 주를 사랑하고 복을 주셨으니 필시 숨은 도움이 있었습시다. 지금 부역을 일으킴에 기한이 있는데 큰 눈이 그치지 않아서 백성을 방해하고 일을 해치니 죄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歐陽修가 신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분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의 완성 여부는 신과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신령님께 감히 진실로 고합니다. 수일 내로 활연히 맑게 개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니 신께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상황.⁴²⁾

관리가 신을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하며 신의 영험 함만이 비를 그치게 하여 상황을 완성토록 할 수 있으므로 백성을 아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漢高祖廟賽雨文」은 한고조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글이다.

삼가 맑은 술과 풍성한 안주를 바치며 한고황제의 신께 제사를 바칩니다. 옛 위정자들은 사람을 거느리되 매우 근면하고 재난을 방지함도 매우 조심하고 스스로 돈독함을 면려하셨습시다. 그러므로 농사를 권장하고 쓰임을 절약하여 풍작을 고르게 하고 기근을 보충하였습니다. 비록 홍수와 가뭄의 해라도 굶어 죽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한번 천재를 만나면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고 인사의 빠진 것을 수양 하는데 힘써 음양의 조화를 회복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사한 때임에도 농사를 백성에게 권장할 수 없고 재난을 방지할 도구가 없습니다. 한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황당해하게 하고 또 스스로 책하며 그 빠진 것을 수양하지도 못하여 번번히 신께만 구걸합니다. 신의 총명하심에 힘입어 그 잘못이 관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백성들의 슬픔을 가련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풍년을 내리시어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미치게 하시옵소서. 신의 큰 은혜를 어찌 갚

42) “昨者王倫爲盜，攻劫城市，州民被虐，餘毒未療，非待修言，乃神所見。近蒙朝旨，許理城隍，所以戒往弊，防未然。惟神愛福此州，必有陰助。今興役有期，而大雪不止，沮民害事，咎有歸。惟修不能事神治民，當有明罰。而城之成否，自繫神民。惟神之靈，敢以誠告，數日之內，豁然陽開，尚不失時，在神而已。尚饗!”

을 수 있겠습니까? 관리의 큰 잘못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백성들과 영원토록 신을 섬기는데 감히 나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향⁴³⁾

옛 위정자들이 근면하고 재난에 대비도 잘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슬픔을 호소하고 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며 신은 자신에게 차라리 벌을 내리고 백성들을 살려 달라는 애원을 하는 내용이다. 歐陽修의 간절한 愛民 사상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祭桓侯文」에서도 백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담뱃 담겨 있다.

삼가 안주와 술을 바치며 환후 장장군의 위령께 고합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역시 수고로운 일입니다. 근력을 다하여 한 해 내내 부지런히 일하고 수년간 경작을 하는데 한 해의 곡식이 여무는 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곡식이 여물어도 세 금 내느라 겨를이 없으니 여유가 있어 먹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행히 흉수와 가뭄이 들면 쓰러져 서로 배고 굶어 죽습니다. 무릇 풍년은 항상 적는데 흉년은 항상 많습니다. 올 여름에 보리가 이미 여물고 조와 벼가 이른 것은 백성이 모두 그것을 먹었습니다. 가을에 또 (곡식이) 많이 여물어 아마도 한두 해의 흉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바랬습니다. 한 해의 농사일이 곧 이루어지려는데 어찌 차마 그것을 무너뜨리십니까? 오늘밤 밭의 가을 작물이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비가 적고 비가 내린 것이 자꾸 근교에만 내리니 산과 밭의 편벽되고 먼 곳은 비를 원하는 지역이지만 모두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신께서 복을 내리시어 의당 그 은혜를 고루 하시어 끝내 농사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께서 살아서는 충성과 용기로 사람을 섬기어 위엄과 명성이 형광과 초광에 떨치셨으며 죽어서는 그 땅에서 먹으니 백성들이 마땅히 고하는 바입니다. 상향⁴⁴⁾

43) “謹以清酌庶羞之奠，至祭于漢高皇帝之神。古之爲政者，率人甚勤，備災甚謹而自勉其篤。故勸農節用，均豐補敗，雖有水旱之歲，而無飢殍之民。一遇天災，則厚自貶責，務修人事之闕，而復陰陽之和。今乃不然。當無事之時，不能勸民於農，而亡備災之具。一月不雨，使民惶惶，又不自責以修其闕，而動輒干神。賴神聰明，知厥過之在吏，閔斯民之可哀，賜之豐年，遍及遠邇。神之太惠，如何可報？吏之大過，如何可逃？惟與民永永事神，無敢懈。尙饗！”

44) “謹以瓮肩卮酒之奠，告于桓侯張將軍之靈，農之爲事亦勞矣，盡筋力，勤歲時，數年之耕，不過一歲之稔。稔，則租賦科斂之不暇，有餘而食，其得几何？不幸則水旱，相枕爲餓殍。夫豐歲常少，而凶歲常多。今夏麥已登，粟與稻之早者，民皆食之矣。秋又大熟，則庶几可以支一二歲凶荒。歲功將成，曷忍敗之？今晚田秋稼將實而少雨，雨之降者，類在近郊，山田僻遠，欲雨之方，皆未及也。惟神降休，宜均其惠，而終成歲功。神生以忠勇事人，威名震於荆楚，歿食其土，民之所宜告也。尙饗！”

백성의 애달파하는 삶을 실감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농사를 일년 내내 고생하여 열심히 지어도 수년 만에 한번 풍년을 만나기도 힘들고 풍년이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풍년이 들어도 어려운 삶인데, 지금처럼 가뭄 때문에 곡식이 여물지 않으면 악순환으로 계속 빈궁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백성들의 고단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만이 이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라 한다. 단순히 기우뿐만 아니라 진정한 백성에 대한 애착과 연민이 묻어 나오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修城祈晴祭五龍文」은 경력 7년(1047) 歐陽修 나이 41세 때의 글로 백성의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비가 사물을 적시니 넓도다, 그 이로움이여. 그 지나치고 부족함에 이르러 우환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백성이 농사에 힘써 무르익으려 하는데 무너뜨렸습니다. 관리가 직분에 부지런하여 이미 완성하였는데 망가뜨렸습니다. 용은 관리와 백성에게 있어 왜 노하고 왜 어그러집니까? 산의 못에 사당이 있으니 즐겨 물 속에서 놀 수 있습니다. 의당 편안히 거하여 조용히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비가 내림에 그 많음이 이미 지나칩니다. 축축이 적시어 거두고 쌓아 일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와서 고향 터이니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기다려 주십시오.⁴⁵⁾

백성들이 농사일에 수고로우나 가뭄으로 수확이 없으면 생활이 궁핍하게 되므로 그 안스러운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靑州求晴祭文」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歐陽修의 마음을 담고 있다.

유 모월 모일 구관 歐陽修가 삼가 맑은 술을 올리며 동악천제인성제에게 고해 바치며 말씀드립니다. 무릇 보리라는 것은 사계절을 다 지낸 후에야 열매를 맺으니 무릇 소위 생육, 장생, 성취의 공은 지극하다 할 수 있다. 사계절의 공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며칠간의 비로 그것을 망치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고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십니다. 농사일에 각고의 노력을 부지런히 하는데 홍수와 가뭄의 재해와 메

45) “雨澤於物，博哉其利。及其過差，患亦不細。民勞於農，將熟而敗。吏勤於職，已成而壞。龍於吏民，何怒何戾？山湫有祠，樂可潛戲。宜安爾居，靜以養智。冬雪春雨，其多已太。浸潤收畜，足支一歲。旱則來告，否當且待。”

뚜기의 재앙으로 풍년은 항상 적고 흉년은 항상 많아서 얻은 바로 항상 잃은 바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지극히 인자하시니 우리 백성들이 이와 같음을 가련히 여기시므로 그 간에 때때로 큰 풍년을 하사하시어 보상해 주셨습니다. 무릇 풍년은 얻기 어렵다 할 수 있으니 이미 하사해 주고는 또 갑자기 빼앗아가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며 신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지금 밭에 있는 것으로 이삭이 수그러져 들을 덮고 마당에 있는 것으로 그 쌓은 바가 언덕과 같으니 백성이 이리저리 다니며 보고도 이삭에 손을 댈 수 없고 쌓인 것을 창고에 들여 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날아가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며 신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오로지 신의 영험함으로 열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빌어 하늘이 크게 하사한 것을 이루시고 때에 맞추어 수확할 수 있게 하시어 백성이 풍족하게 먹고 나사가 풍족하게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이는 즉 신의 영험함에 힘입어 열흘 동안의 짧은 시간을 빌어 구주 수천리의 땅에 공과 사가 모두 그 하사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대개 빌린 것은 적어도 이익된 것은 많으므로 감히 칭하옵니다. 상항⁴⁶⁾

신에게 가뭄의 재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삭은 고개를 떨구고 시장에서는 팔 물건이 없고 곡간에는 쌓은 것이 없어 피폐되어 가는 모습을 말하고 이러한 혹독한 생활고는 하늘과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달라고 있다.

「豐樂亭記」는 범중엄이 慶曆新政으로 죄를 얻어 滁州로 폄직된 것을 계기로 慶曆 6년(1046)에 쓰여졌다.⁴⁷⁾

46) “維年月日，具官修謹以清酌之奠致告于東默天齊仁聖帝而言曰，夫麥之爲物，歷四時而后實，凡所以生育長養成就之功，可謂至矣。以四時之功而成之，以數日之雨而壞之，此殆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農服耒耜，有勞筋骨之勤，而水旱之災，螟蝗之孽，豐歲常少而以歲常多，所得常不補其所失。天之至仁，憫斯民之若此也，故於其間，時賜一大豐之歲以償之。夫豐歲可謂難得也，既賜與之，又遽奪之，此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今在田者垂穗而蔽野，在場都其積而如坻，民彷徨而視之，穗者不得施其手，積者不得入于廩，使皆化爲羽翼而飛揚之，豈不可惜也哉！此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惟神之惠，假以十日之不雨，以成天之賜，使收獲得以時，而民足食，公足用。是則賴神之靈，假之旬浹之頃，而九州數和吉里之地，公私皆受其賜矣。蓋所假者少而所利者多，故敢以爲詩。尚饗！”

47) 慶曆 7년 歐陽修는 滁州에서 詩「豐樂亭遊春三首」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綠樹交加山鳥啼，晴風蕩漾落花飛。鳥歌花舞太守醉，明日酒醒春已歸。春雲淡淡日輝輝，草惹行襟絮拂衣。行到亭西逢太守，籃輿酌酒插花歸。紅樹青山日欲斜，長郊草色綠無涯。游人不管春將老，來往亭前踏落花” 이 시는 풍락정 주위의 수려한 사계절의 경관, 그 중에서도 봄의 경치를 노래한 것으로 풍락정을 에워 싸고 있는 경치를 紅, 靑, 綠 등의 색상어를 통해서 다채롭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는 歐陽修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였다. 이는 「豐樂亭記」에서 나타나

내가 저주를 다스린 이듬해 여름 처음 저주의 물을 마셨는데, 달아서 저주 사람들한테 물어서 저주 남쪽 백보 떨어진 근교에서 물을 얻었다. 그 위로는 풍산이 우뚝 빼어나게 서 있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그윽하게 깊이 숨겨 있으며 가운데에는 맑은 샘이 용솨음치며 솟아 나왔다. 좌우를 굽어보고 우러러보고 돌아보며 그것을 즐겼다. 이에 잘 흐르는 샘과 비추이는 돌이 있는데, 개간하여 정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주 사람들과 가서 그곳에서 노닐었다.

저주는 오대의 전쟁 때에 전쟁터로 쓰였다. 옛날 태조 황제가 일찍이 주의 군사로 이경의 병사 십오만을 청류산 아래에서 격파하고 그 장수 황보회와 요봉을 저주 동문 밖에서 사로 잡아 마침내 저주를 평정하였다. 나는 일찍이 그 산천을 살펴 그 지도와 기록에 의거해서 높이 올라 청류산의 관문을 바라보고 황보회와 요봉이 사로 잡힌 곳을 가려고 했지만 노인네들이 모두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 대개 천하가 평온한 지 오래되었다. 당나라가 그 정치를 잃은 뒤로 해내가 분열되고 호걸들이 함께 일어나 다투니 버금가는 국가에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송이 천명을 받은 이래 성인들이 나와 사해가 하나되었다. 이전에 힘저함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제거되었거나 소멸되어 백년 사이에 막연히 다만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것만이 보인다. 그 일을 묻고자 하나 남은 노인들이 없다.

지금 저주는 강수와 회수 사이에 끼어 배와 수레와 장사치들과 사방의 빈객들이 이르지 않는 곳이니 백성들은 살면서도 바깥 일을 보지 않고 밭에서 편안히 입고 먹으며 생을 즐기고 죽은 이를 보낸다. 그러나 왕의 공덕으로 쉬고 보양하고 살고 번식하게 해서 교화시킴이 백년동안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이곳에 오니 그 땅이 편벽되고 일이 간단함을 즐기고 또 그 풍속이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사랑하였다. 산과 계곡 사이에 이 샘물을 얻어 이에 날마다 저주 사람들과 더불어 우러르고 산을 바라보며 굽어보며 샘물 소리를 듣고 그윽한 향초를 따고 교목의 그늘 아래 앉으며 서리바람과 얼음눈이 내리면 각별히 맑고 빼어남을 드러냈다. 사계절의 경치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요행히 그 백성이 해마다 물질의 풍부함을 즐기고 나와 함께 노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 산천을 근거로 해서 그 풍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풍년의 즐거움에 편안해 할 수 있는 까닭이 다행히도 태평무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임을 알게 한다.

무릇 윗분의 은덕을 선양하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은 자사의 일이다. 마침내 글을 써서 그 정자에 이름을 붙인다.⁴⁸⁾

는 풍락정의 경치를 즐기면서도 관리의 직분에 충실하려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태도와는 다르다.

48) 「豐樂亭記」: 修既治滁之明年夏, 始飲滁水而甘, 問諸滁人, 得於州南百步之近. 其上豐山聳然而特立, 下則幽谷窈然而深藏, 中有清泉潄然而仰出. 俯仰左右, 顧而樂之. 於是疏泉鑿石, 辟地以為亭, 而與滁人往游於其間.

滁於五代干戈之際, 用武之地也. 昔太祖皇帝嘗以周師破李景兵十五萬於清流山下, 生擒其將皇甫

경력 5년(1045) 봄에 경력신정을 주도했던 杜衍, 范仲淹, 韓琦, 富弼 등이 계속 파면되었는데, 당시 歐陽修는 河北都轉運使를 맡고 있었다. 그는 서를 올려 간언을 하여 이 네사람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다가⁴⁹⁾ 수구 세력의 노여움을 사서 저주로 폄적되었던 것이다.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저주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백성과 즐거이 지내는 것을 오대의 전쟁 때와 대비하여 말함으로써 송 왕조가 통일을 이룬 것을 가송한 것이다. 歐陽修는 먼저 풍락정이 깊은 계곡에 숨겨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며 놀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고 저주의 기존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였다. 저주는 오대 때에는 전쟁터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조정의 은혜를 입어 편안하고 풍족하여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말하였다.⁵⁰⁾ 거기에 그 곳의 수려한 풍경, 풍부한 수확과 그들의 간단함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까지 더하여 백성들은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곳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상술한 몇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자의 이름을 ‘豐樂’이라 붙임을 밝히고 있다.⁵¹⁾ 歐陽修는 이 문장 안에서 일의 절차가 간단하고 풍속이 편안한 것을 치

暉, 姚鳳於滁東門之外, 遂以平滁. 修嘗考其山川, 按其圖記, 升高以望清流之關, 欲求暉, 鳳就擒之所, 而故老皆無在者, 蓋天下之平久矣. 自唐失其政, 海內分裂, 豪杰并起而爭, 所在爲敵國者, 何可勝數! 及宋受天命, 聖人出而四海一. 向之憑恃險阻, 剗削消磨, 百年之間, 漠然徒見山高而水深. 欲問其事, 而遺老盡矣.

今滁介於江, 淮之間, 舟車商賈, 四方賓客之所不至, 民生不見外事, 而安於畝畝衣食, 以樂生送死, 而孰知上之功德, 休養生息, 涵煦百年之深也. 修之來此, 樂其地僻而事簡, 又愛其俗之安閑. 既得斯泉於山谷之間, 乃日與滁人仰而望山, 俯而聽泉, 掇幽芳而蔭喬木, 風霜冰雪, 刻露清秀, 四時之景, 無不可愛. 又幸其民樂其畷物之豐成, 而喜與予游也. 因爲本其山川, 道其風俗之美, 使民知所以安此豐年之樂者, 幸生無事之時也. 夫宜上恩德, 以與民共樂, 刺史之事也, 遂書以名其亭焉.

49) 「乞辨明藏之奇言事札子」: 臣先于慶曆中擢任諫官, 臣感激仁宗恩遇, 不敢顧身, 力排奸邪, 不避仇怨, 舉朝之人側目切齒, 惡臣如仇. 適會臣有一妹夫張龜正前妻女, 嫁臣一疏族不同居居晟, 于守官處與人犯奸. 是時錢明逸爲諫官, 遂言臣侵欺本人財物, 與之有私. 既蒙朝廷置獄窮鞠, 并無實狀, 事得辨明, 而當時執政大臣, 惡臣者衆, 其陰私事雖已辨明, 猶用財物不明, 降臣知滁州.

50) 歐陽修는 滁州에 대한 감정을 詩로도 많이 나타내었는데, 「別滁」와 「謝判官幽谷種花」 등이 있다. 먼저 「別滁」에서 “花光濃攔柳輕明, 酌酒花前送我行. 我亦且如常日醉, 莫教管弦作離聲.”라 하여 歐陽修가 慶曆 8년 揚州의 태수로 임명되어 떠나게 될 때의 이별의 아쉬운 심정을 적고 있다. 「謝判官幽谷種花」에서는 “淺深紅白宜相間, 先後仍須次第開. 我欲四時携酒去, 莫教一日不花開.”라 하여 저주의 봄의 경치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51) 「滁州志」에서 呂元中の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歐陽修謫守滁上, 明年得醴泉于醉翁亭東南隅. 一日, 會僚隸于州廡, 有以新茶獻者, 公敕吏汲泉未至, 而汲者僕出水, 且慮後期, 遽酌他泉以進. 公已知其非醴泉也, 窮問之, 乃得它泉于幽谷山下. 文忠博學多識而又好奇, 既得

정의 최고로 간주하고 아울러 평온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면도 중시하고 있어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적 효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문장 도처에서 작자의 백성을 위한 생각이 드러나 있으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살필 수 있다.⁵²⁾ 그는 백성과 더불어 편안히 즐길 수 있어야만 비로소 관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유가 정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구양수는 '朋黨'의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는 여기에 「朋黨論」과 같은 문장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내세운다. 「朋黨論」은 慶曆 4년(1044) 仁宗이 杜衍, 富弼, 韓琦, 范仲淹 등을 기용하여 개혁 정책을 펴 歐陽修 등 간관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으나 수구 세력들이 반발하고 呂夷簡, 夏竦 등이 그들을 '朋黨'이라 모함한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며 쓴 문장이다.

제가 듣기로 봉당의 설은 자고로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임금께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셨을 따름입니다. 크게 무릇 군자와 군자는 도를 같이하여 벗을 삼고 소인과 소인은 이익을 같이하여 벗을 삼았으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은 소인에게에는 봉당이 없고 군자만이 봉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소인이 좋아하는 것은 봉록과 이득이며 탐하는 것은 재화입니다. 이득을 같이 할 때에 잠시 당을 이루어 끌고 벗이라고 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이득을 보면 앞을 다투다가 혹 이득이 다하면 교류가 소원해진 즉 오히려 서로 적대시하고 해치니 그 형제와 친척이라도 서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건대 소인은 벗이 없고 그들이 잠시 벗으로 삼은 것은 거짓입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는 바는 도의이고 행하는 바는 충신이며 아끼는 바는 명예와 절개입니다. 그것으로써 몸을 닦은 즉 도를 같이하여 서로 보탬이 되고 그것으로써 나라를 섬긴 즉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구제하니 시종이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군자의 벗입니다. 그러므로 인군된 자는 다만 마땅히 소인의 거짓된 벗만을 물리쳐야 하며 군자의 진실한 벗을 쓰시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⁵³⁾

是泉，乃作亭以臨泉上，名之曰豐樂。”

52) 『宋史·歐陽修傳』：以縱爲寬，以略爲簡，則政事弛廢而民受其弊。吾所謂寬者，不爲苛急，簡者，不爲繁瑣耳

53) 「朋黨論」：臣聞朋黨之說自古有之，惟幸人君辨其君子小人而已。大凡君子與君子以同道爲朋，小人與小人以同利爲朋，此自然之理也。然臣謂小人無朋，惟君子則有之，其故何哉？小人所好者祿利也，所食者財貨也。當其同利之時，暫相黨引以爲朋者，僞也。君子則不然，所守者道義，所行者忠信，所惜者名節。以之修身，則同道而相益，以之事國，則同心而共濟，終始如一。此君子之朋也。

慶曆 3년(1043) 범중엄이 수뇌가 된 혁신파가 집정의 지위를 획득하고 新政을 실행하였는데, 보수파가 봉당이라는 죄목으로 그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歐陽修가 이 문장을 써서 강력히 반발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문장은 당시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⁵⁴⁾ 전체적으로 조성되는 날카로움과 첨예함으로써 정치 투쟁의 복잡함과 격렬함을 알 수 있다. 북송 초 유학의 중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군자와 소인의 변별 논쟁이었다. 사실 한당 유학 이래 소인이 당을 만들고 군자는 당이 없다는 경전의 말이⁵⁵⁾ 관료 사대부들 사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군자야말로 진정한 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감히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최초로 왕우칭이 그 이론 형태를 취하여 군자가 당이 있다고 언급한 데에서 봉당의 의론이 시작하였는데,⁵⁶⁾ 경력신정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이 개혁파들을 봉당이라는 죄목으로 모함하자⁵⁷⁾ 범중엄이 政敵의 봉당론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변론하였다.⁵⁸⁾ 그러나 범중엄의 변론이⁵⁹⁾ 상세하지 못하여서 같은 날 歐陽修가 이 문장을 써서 구체적으로 군자가 당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인종을 설득하였다. 군자와 소인의 봉당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명쾌하게 밝힌 것은 기존의 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故爲人君者，但當退小人之僞朋，用君子之眞朋，則天下治矣。

- 54) 『重修實錄本傳』: 于是爲党論者惡修摠語其情狀，至使內侍藍元震密上疏，言，范仲淹歐陽修尹洙余靖，前日蔡襄謂之四賢，斥去未幾，復還京師。四賢得時，遂引蔡襄以謂同列，以國家爵祿爲私惠，膠固朋黨，苟以報謝當時歌咏之德。今一人私党止作十數，合五六人門下党與，已無慮五六十人，使此五六人遞相提契，不過三二年，布滿要路，則誤朝迷國，誰敢有言，挾恨報仇，何施不可。九重至深，萬機至重，何由察知!
- 55) 『尚書·洪范』: 無偏無唐，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
『論語·爲政』: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 56) 『全宋文·一五一·王禹偁·朋黨論』: 夫朋黨之來遠矣，自堯舜時有之。八元，八凱，君子之黨也，四凶族，小人之黨也。惟堯以德充化臻，使不害政，故兩存之。
- 57) 『長編·卷一四八·慶曆四年戊戌條』: 范仲淹，歐陽修，尹洙，余靖，前日蔡襄謂之四賢，斥去未幾，復還京師。四賢得時，遂引蔡襄以爲同列。以國家爵祿爲私惠，膠固朋黨，苟以報謝當時歌咏之德。今一人私黨，止作十數，合五六人，門下黨與已無慮五六十人。
- 58) 『長編·卷一四八·慶曆四年四月戊戌條』: 上謂補臣曰，自昔小人多爲朋黨，亦有君子黨乎? 范仲淹對曰，臣在邊時，見好戰者自爲黨，而怯戰者亦自爲黨。其在朝廷，邪正之黨亦然，惟聖心所察爾。苟朋而爲善，于國家何害也?
- 59) 『范文正公集·舉歐陽修充經略掌書記狀』: 臣訪于士大夫，皆言非歐陽修不可。文學才識爲衆所伏，往者緣臣之罪，有黷朝聽，蓋本人素好議論，聞于搢紳，只如臣爲諫官之初，杜衍任中丞之日，修皆曾移書責臣等臧默無執，非獨有高若訥之讓也。以此明之，實非朋黨。若訥知其無他，亦常追悔。

것으로 인종을 설득시켜 경력신정을 계속 시행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⁶⁰⁾ 이는 구양수를 비롯한 그와 정치적 이상을 함께한 인물들의 행보에 큰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6. 結論

북송 초 황제의 권환을 강화하는 방책으로서 무인을 배척하고 문인을 숭상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과거를 통해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인재들의 등용은 북송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하에서 구양수를 비롯한 많은 문장가들은 과거를 통하여 정계로 진출한 정치 관료로서 당시 정치활동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치가로서, 문장가로서의 양자의 역할을 부담하였으며 당연히 그들의 문장 가운데에는 강한 정치성을 띠는 편들이 적지 않다. 특히 宋代 古文運動을 주도하며 처음 西京留守推官을 배수받은 후 縣令, 知州, 按察使, 諫官, 翰林學士 등을 역임하고 만년에는 樞密副使와 參知政事로서 실제로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구양수의 정치적 입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크다. 이에 그가 문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내용은 곧 북송 사대부 사이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그는 문장 안에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과거제도를 완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였다. 실제 그는 嘉祐 연간에 禮部貢舉를 관장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북송 초의 화미한 문풍의 時文을 배격하고 古文을 쓸 것을 제창하며 고문운동을 주도하였다. 인재의 등용과

60) 歐陽修와 范仲淹 외에 尹洙도 朋黨에 관한 글을 썼는데, 다음과 같다. 『河南先生文集·卷十八·論朋黨疏』: 臣聞知賢而不能任, 任之而不能終, 於治國之道, 其失一也. 去年朝廷擢歐陽修, 余靖, 蔡襄, 孫甫相次爲諫官, 臣知數子之賢且久, 一旦樂其見用, 又慶陛下得賢而任之, 所慮者, 任之而不能終爾. 以陛下知臣之明, 修等被遇之深, 豈有任之而不能終哉!……如陛下待修等未易于初, 則臣有稱道賢者之美, 如其遇過已移, 則臣負朋黨之責矣.

더불어 그는 문장을 통하여 人情에 기반한 관대하고 간요한 치술을 제시하였으며 관리로서 愛民은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견의 제시는 문장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치가로서의 그의 활동과 함께 실천되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 黃啓方, 『王禹偁研究』, 學海出版社, 1979.
『四部叢刊正編·歐陽文忠公集』, 臺灣商務印書館, 1981.
『四部叢刊正編·范文正公集』, 臺灣商務印書館, 1981.
郭沫若 等, 『中國古代社會研究』, 上海書店, 1994.
趙紹銘, 『中國宋遼金夏政治史』, 人民出版社, 1994.
魯亦冬, 『中國宋遼金夏經濟史』, 人民出版社, 1994.
蕭公權 著, 최명·손문호 공역, 『中國政治思想史』, 서울대출판부, 1998.
陳邦瞻 編, 『宋史紀事本末』, 遼寧古籍, 1998.
祝尙書, 『宋人別集敘錄』, 中華書局, 1999.
존 K. 페어뱅크,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2003.
楊仲良, 『續資治通鑑長編紀事本末』, 북경도서관, 2003.
宋代史研究會, 『宋代社會のネットワーク』, 汲古書院, 2004.
顧頡剛·劉起鈞, 『尚書校釋譯論』, 中華書局, 2005.
程樹德, 『論語集釋』, 中華書局, 2006.

< Abstract >

Through the Classical Prose Movement, the Chinese ancient prose was improved accomplished to form its perfect style and contents and produced its best works. The Classical Prose Movement have been examined by many researchers, hereupon this study tried to discuss about political contents of Ou Yangxiu's prose.

This study investigated more details about zhenglunwen(政論文) about development and restoration of new dynasty indicated literary, practical, realistic direction of prose and influenced later ages for a long time. Since then, Both pianwen and guwen was often

written with political contents and zhenglunwen(政論文) was more activated by the paired style or santi(散體) with appealing voice elegantly.

Particularly, at early Northern Song, Ou Yangxiu followed the style of Han, Yu, respected teachings of Liuqing(六經), guided Fanzhongyan(范仲淹) and Ouyang Xiu through simple and elegant zhenglunwen(政論文). The contents of his zhenglunwen(政論文) such as expa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宰相權), a lively about cliques(朋黨論), respect of militarysubjects, curtailment of taxation, etc was inherited to reform ideology of Qinglixinzheng(慶曆新政) and influenced on restoration of the old style about guya(古雅) with plain style.

Key Words : Ouyang Xiu(歐陽修), political contents, 科擧, 士大夫, zhenglunwen(政論文), 人才登用, 寬簡, 治術, 愛民, 儒家政治, 理想, 宋代古文運動, 政治家